

주요용어 : 역사, 권력, 지식, 담론

지식/권력의 현상으로 본 간호와 의학사

김남선*, 홍윤미*, 이규은*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의학 모델에 근거한 서구식 현대의학은 자타가 공인하는 정통 의학으로서, 과거 어느 시기에 비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단일화되어 있다. 현대의학이 강력히 내세웠던 주제는 ‘과학’이었으며 경쟁자들에게 짝은 낙인은 ‘비과학’이었다. 그런데 ‘과학적 의학’이라고도 불리는 오늘의 정통의학이 서구사회에서 주류의 자리를 차지 한 것은 기껏해야 150년의 역사를 헤아릴 뿐이라(Hwang, 1999)고 한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서양사회는 18세기까지도 산파와 이발사 외과의(baber-surgeon), 약제사, 의사가 보건의료를 함께 나누고 있었으며, 이들의 역할간에는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의사에게만 어떤 특권이나 대우가 보장되지도 않았다(Committee of editing on health and disease in Open university, 1991). 그렇다면 현재 의사들이 갖게 된 전문적 권력의 근원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의학과 의사들이 차지하게 된 위치는 부단한 과학적 탐구의 개가 혹은 인본주의적 노력의 결과라는 선형적 진화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인가? 오랜 간호 역사 속에서 산파나 간호사들이 만들어 내었던 의료지식들, 또한 일반인들이 만들어 낸 의료지식들은 비과학적이므로 지식체계에서 배제되어 왔는가?

이들 물음에 대해, 의사 전문직의 출현이 그에 대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나, 의학의 과학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노력의 산물로 보는 인과적 설명 그리고, 경험적 지식은 대부분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없다든지, 여성의 일로서 시작된 간호의 역사성 때문에 간호가 의학에 독점적 지배권을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Reverby,

1987) 등의 분석이 있어 왔다.

의료사회학의 여러 연구들(Freidson, 1986; Conrad and Schneider, 1980)은 조직화된 보건의료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검토하면서 전문직으로서 의학의 위상이 의료에 대한 독점권(monopoly)의 확립정도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었으며, 이제 ‘권력’으로서의 전문직은 경제적, 직업적 지배 및 독점이라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서 사회구조적, 문화적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행사되는 전문적 권력으로서 그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불란서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지식의 계보학적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지식과 권력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간호 및 의학사에 있어 새로운 역사 읽기를 자극한다.

푸코는 역사분석을 통해 지식과 권력과 억압 사이의 함수관계에 대한 새로운 성찰을 보여주는데, 그는 지식이 어떻게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담합하고 그런 다음 어떻게 스스로를 합법화시켜 나가며 담론(Discourse)으로서의 힘을 행사하는가를 드러내었다(Kim, 1997). 그러므로 과학으로서 의학의 발전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지식과 권력의 합성물에 다름 아니다.

그는 권력에는 정치적 권력(political power)과 감시적 권력(disciplinary power)이 있다고 보았는데(Armstrong, 1987), 특히 그가 주목한 것은 감시적 권력으로, 근대에 있어 모든 것을 꿰뚫어 규범화하는 감시 권력의 영향은 먼저 인간의 몸을 지배하고, 이어 일상적인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의학은 이들 신체적 감시의 규범화 효과를 과학적으로 대상화하고 인간내면에까지 확장시키는데 기여함으로써 막대한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푸코에 따르면 권력의 작용은 끊임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역으로 지식은 계속하여 권력의 효과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는 권력의 작용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관통하고 의학적 담론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그 대상들이 상황이나 조건에 따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라 어떻게 변모하고 재구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보여 줌으로써 이전의 역사 기술과는 달리, 역사를 암암리에 거시 의식으로 개념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증법적 종합이라는 기왕의 역사 기술에서 한 걸음 떨어져 푸코의 관념들 내에서 근대 이후 간호, 의학사 텍스트 및 건강담론에 대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간호와 의학의 담론과 그 실천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추적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료체제 내에서의 간호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전문직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전략구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용어의 정의

- 담론(Discourse): 전통적 의미의 담론은 논증적 언어,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 들 중에서 학적인 체계를 갖춘 언어들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 올수록 이 말의 범위가 확장되어 오늘날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언어들 즉 일상적인 담화와, 문학적, 종교적, 정치적 담론들, 지식으로서의 체계를 갖춘 언설들, 나아가서 때로는 과학적 명제들까지 포괄하는 말(Foucault, 1970)이 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담론을 권력과 지식의 복합체로서 이해하는데, 즉 권력은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가능케 하고 이 지식의 활용은 동시에 새로운 권력효과를 낳는다고 본다.
- 권력: 푸코가 의미하는 권력이란 통상적으로 쓰는 권력의 개념 보다 훨씬 광의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언어행위에 의해 상대방의 사고, 감정, 행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즉, 언어행위를 통하여 일정한 방향과 방식으로 사회구성원들을 부지불식간에 유도하는 힘을 그는 권력이라고 보는 것이다(Kim,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 권력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규정하고, 지식과 기술 따위를 규정하는 힘을 의미한다.
- 계보학: 푸코가 고안한 독특한 연구방법으로서, 전통적인 역사적 방법에 대립한다. 그 차이점은 연속성과 비연속성, 절대적인 것과 상대적인 것, 안정성과 유동성, 고귀한 것과 평범한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방법론에 있어서 중심 목적은 다음의 질문에 답하는 일이다. “어떤 종류의 권력이 진실에 대한 담론의 생산을 가능케 하여 우리 사회에 그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렇게 계보학은 담론 형성을 조건짓고 제한하고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특히 근대사회에 있어서의 권력,

지식, 몸의 관계를 명료하게 보여준다(Harbermas, 1994; Nettleton, 1992).

II. 문헌고찰

푸코(1984)에 따르면 서양 역사에서 앎 즉 지식-권력의 메커니즘이 작동되기 시작한 것은 부르주아 계급의 부상과 함께였다고 한다. 이 지식-권력의 지배구조가 17~18세기에는 인간의 육체를 감시하고 규제하는 감시 권력으로 나타났고, 20세기에 와서는 종으로서의 인간전체, 국민전체를 생물학적으로 조절하려는 권력의 야심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소위 인간-제어권력으로서의 부상이다. 그는 인간의 몸을 도구로 삼아 권력을 키워 가는 몸의 정치학을 치밀하게 추적한다(Park, 2002).

그는 먼저 18세기 말 이래로 ‘광기’의 현상이 어떻게 정신병, 즉 하나의 의학적 현상으로 만들어지는 임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19세기와 20세기 정신과 의사들이 광기에 관해 말하였던 담론의 발생사를 재구성하였다. 역사의 중간단계에 ‘고전적’(17세기 중엽에서 18세기 말)인 것으로부터 ‘근대적’(18세기 말에서 19세기 이후)인 것으로의 과도기를 상징하고 있는 푸코는 권력의 실천으로서의 담론(discourse)이 신체와 정신에 작용하는 방식을 계보학적 분석으로 설명함으로써 전체론적 역사 이해에 반론을 제기한다.

푸코(1973)는 파리의 빈민구호병원(L' Hopital General)이 개설된 1656년과 필립 피델이 비세르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들을 감금으로부터 해방시킨 1793년 사이의 시기를 주목한다. 고전시대 이전, 정상인의 세계로부터 배제되지 않았던, 오히려 비범한 것으로까지 여겨졌던 광기가 고전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성과 분리되었다. 푸코는 이 시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를 노정시켰는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 파리의 빈민구호병원(L' Hopital General)은 오늘날의 병원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었다. 원래 나병환자 수용 시설이던 것을 나병이 자취를 감추게 되자 광인을 비롯하여, 몸이 아픈 사람, 게으른 자, 방탕한 자, 실업자, 극빈 학생 등을 강제로 수용하던 곳이었다. 즉, 병원이라는 장소는 고전시대의 합리성이라는 정의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함께 감금되어 있던 공간으로, 당시 프랑스에 정착된 군주제와 부르주아 질서유지의 한 장치였으며, 이들의 수용은 당시 사회를 위협하던 모든 무질서의 원인을 차단할 수 있는(Park, 1995)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다.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광기는 범죄나 사회악과 구분되어 ‘정신질환’으로 간주되고 감금 시설은 정신병원이 된다. ‘정신질환자는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으로’라는 정신의학적 담론이

등장하게 된다. 이즈음 파리의 살피에트르 병원에 부임한 피넬은 환자들을 묶었던 쇠사슬을 풀어주게 되는데, 간호역사서(Lee, 1991)나 의학사(Ackerknecht, 1979)저술들은 정신 질환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부여하려는 이러한 사회운동이 계몽주의에 따른 당대의 다른 사회개혁-감옥의 환경개선, 여성운동, 노동 조건의 향상-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진행되었다고 함으로써 인본주의적 노력과 모더니티의 도래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푸코는 이러한 인도주의적 치료법이 단지 신체적 감금을 정신적, 내면적 감금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그는 모든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는 이론적 작업이 있게 마련이듯이, 쿠틀에 의해 수립된 실증주의가 사회를 통제하고자 했던 서구 부르주아 권력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병리학, 정신의학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제 ‘광기는 ‘정신질환’으로 명명되어 전적으로 의사의 치료대상이 되는데, 서구 부르주아 체제와 맞물린 실증주의의 영향은 심리학과 같은 인문과학의 발달을 유도하였고, 이러한 학문들의 업적에 힘입어 의사들은 정신의학 담론이라는 지식을 체계화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의사들은 인간 정신의 정상과 비정상을 판정하는 자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게 것(Armstrong, 1987)이라 한다. 요컨대, 피넬, 튜크를 출발점으로 하여 19세기부터 광기를 다루는 학문으로 정립된 정신의학은 프로이트에 이르면 광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막강한 학문이 되는데 푸코는 이것이야말로 “지식-권력”의 전형이라고 본다(Harbermas, 1994; Hong, 1997).

이렇듯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변화는 군주의 몸에 귀속되던 주권적 권력이, 전 인구의 몸에 귀속되는 감시적 권력으로 대체되는 과정이라는 것이 푸코의 설명이다. 감시적 권력은 몸을 규제하고, 훈련하고, 유지시키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의과학의 탄생은 바로 병원에서의 몸에 대한 관찰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권력변형의 기반은 바로 18세기의 인구증가였는데, 이는 인구집단을 규제할 필요성을 낳았다. 18세기 이전까지도 신체 표면에 드러난 병적 징후들을 분류해 표를 만드는 것을 중시했던 의학이 갑자기 인간의 몸을 열어, 즉 해부를 통해 질병의 원인이 몸의 내부에 있는 종양이나 염증에 의한 것임을 드러낸 것은 의학지식의 진보와 획기적인 발견에 힘입은 것이 아니라, 당시 인구집단 통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 그 때문에 의학은 새로운 의학적 담론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자신을 ‘과학’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었다(Foucault, 1976). 권력과 지식 사이의 이 같은 관계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푸코가 말한 감시적 권

력의 세 가지 수단을 살펴보는 일(Nettleton, 1988) 일 것이다. 그 첫째는 위계적 관찰(hierarchical observation)로, 그의 저작 “감시와 처벌”에 등장하는, 간수가 모든 수감자를 볼 수 있도록 설계된 폐넝쿨론(원형감옥)이 상징하듯이, 인간은 해당 사회의 규범에 어긋나지 않게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감시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 권력의 원천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두 번째 수단은 정상화 판단(normalizing judgement)으로 각 개인의 속성 또는 행위가 타인의 것과 비교된다는 것으로 의사는 바로 대표적인 정상성의 판별자로 선택되었다. 감시적 권력의 세 번째 도구는 정상화 판단과 위계적 관찰이 결합한, 검진(examination)으로 Nettleton(1992)은 길거리에서 공연배우처럼 드라마틱하고 거칠은 모습으로 이를 뽐낸, 전혀 조직화되지 못했던 치의학이 19세기 중반이후 사람들의 구강과 치아를 감시하게 됨으로써 치과전문직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를 좋은 보기로 들고 있다. 우리들 대부분이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에 올바른 칫솔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습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역시 지식으로서의 권력이 행사되는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 즉 의학이나 치의학은 당대의 상황과 조건에 합류하는 정치적 의식화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부상할 수 있었으며, 동시적으로 지식의 재편을 통해, 사회를 과학적으로 보호하고, 인류를 생물학적으로 보호하는 학문으로 자처하며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더 많은 권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III. 본 론

1. 역사 텍스트 분석

“1800년대 중반 의학에서 일대변혁이 시작되었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수준의 의학적 지식이 홍수처럼 쏟아졌다... 의학의 발전에 영향을 끼친 절대적인 대발견이라 하면 린트겐의 발명일 것이다. 이는 의사가 아닌 뷔르츠 부르크 대학 물리학 교수였던 린트겐이었다... 발견당시 임상의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여러 가지 발견들이 임상의학상의 중요한 발전으로 이어졌다. 발견의 출처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농학, 생리학 등이다. 마다가스카르섬의 고슴도치 류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연구하여 열대에 사는 동물이라도 체온을 낮추면 동면 상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심장 수술중 저체온 마취의 길을 열었으며, 박쥐가 어둠 속을 최고속도로 날면서 곤충을 잡는 메커니즘에는 초음파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심장병 진단 기구인 Echocardiogram개

발을 추진하는데 영향하였다..”(의학사 회고경, Comroe, 1977).

깊은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 부단한 노력과 경주를 통해, 실로 엄청난 의학상의 발견과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고, 그 결과 인간의 평균수명은 연장되었고 인류는 이전 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학적 담론은 상식에 가까울 정도로 대중들에게 보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지난 3세기 동안 평균수명 증가와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영양상태와 위생상태의 개선이라는(Moon, 1992)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의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대한 발견들 가운데에는 의학과는 무관한 사람들이 성취한 사례가 많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즉 의학의 성과 역시 다른 분야 연구자들의 업적 위에서 있다는 점이다. 의학이 기초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생물학이나 화학, 물리학과 같은 자연과학을 자신들의 영역으로 맞이하게 된 것도, 전자현미경의 발견으로 해부학이 세포생물학의 시대를 열게 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것은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고 지식을 확대 재생산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당위성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교의 세력이 쇠퇴함에 따라 교회가 운영하던 여러 사업이 중단되었고, 질적인 수녀지도자들에 의해 경영되던 간호사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으며.. 간호요원의 교육이나 준비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간호는 자연히 교육받지 못하고 사명감이 없는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고용되어 이루어졌다(Kim 등, 2000).

“간호사상 이때가 가장 간호사의 수준이 떨어지고 간호사업이 쇠퇴했다고 해서 17세기 후반기부터 19세기 전반기까지 약 200년 동안을 간호의 암흑시대라 부른다.. 이러한 암흑기는 뜻있는 몇몇 사회개혁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때마침 일어난 의학의 과학적인 발달로 새로운 빛을 보게 되었으며,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진출과 교육의 남녀균등 기회 등은 간호를 하나의 직업적 간호로 만드는 전환기를 만들었다(Lee, 1991).

간호 역사서들은 거의 일관되게 중세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수준 높던 간호가 종교개혁 이후에는 쇠퇴하여 암흑기를 맞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중세 초기와 중기에 걸쳐 수도원을 중심으로 엄격한 규율과 훈련을 받은 수도자와 수녀에 의해 보건의료가 제공되기도 하였으나, 중세 후기로 가면서 보

건의료는 점차 세속화한다. 이때 (남성)의사들은 보건의료업무에서 여성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는데, 당시 의료지식을 배우기 위해서는 라틴어가 필수적이었으나 14세기 들어, 수녀원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는 것을 금지시켰고, 1421년에는 여성들이 의료활동을 못하도록 국왕의 정치 자문회인 추밀원(privy council)에 청원하기도 하였다(Committee of editing on health and disease in Open university in England, 1991). 그러므로 보건의료 업무에서 여성배제의 의도는 이미 교회에 의해 시작되었고, 남성치료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던 그 유명한 마녀학살에서 절정에 이른다. 마녀들은 남성의 권위에 잘 복종하지 않는 중년 이상의 과부, 독신녀들이었고 병고치는 사람, 산파들로서 명망이 높은 여성들이었는데, 그들은 중세가 요구하던 바람직한 여성상의 경계를 이반한 자들이었다(Kim, 1997). 300년간 마녀로서 희생된 여성의 수가 무려 100만 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여성 간호사나 치료자들의 지적, 정치적, 경제적 자율성이 남성치료자들에게 얼마나 위협적이었던가를 짐작케 해준다. Nettleton(1988)이 지적했듯이 몸은 정치적 투쟁의 핵심적 장소를 이루며, 이것이 보건의료 부문만큼 명백한 곳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18세기 이후 의사들은 간호를 비롯한 경쟁자들을 배제시키기 위해 더 이상 사람들을 움직여 총칼을 들이대는 권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시대적 조건과 상황에 발맞춘 정치적 의식화를 통해 당대 사회유지의 한 장치인 보건위생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었으며, 의학적 지식의 재구성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인간의 몸과 생활전반을 투과하는 의학적 지식 자체가 권력화의 기반이 된 것이다.

“우리는 나이팅게일의 일생을 공부하면서 그의 품성과 인격을 존경하는 동시에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준 영국사회와 양심적인 정책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의 가정적 배경과 많은 교양과 지식이 그로 하여금 현대적 간호사업의 기초를 닦는데 행정인으로, 정치인으로서의 활약을 공고히 해주었다는 점을 기억하게 된다.. 그녀는 간호사업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전세계적으로 여자의 힘과 지위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갖게 했다.. 한편 그는 간호사의 면허등록제도를 반대했다. 그 이유는 형식적인 자격제도를 만들면 사명감이 흐려지고 자격을 얻은 후에 계속적인 노력과 헌신적인 태도가 철저히 못하다는 것이다.”(Lee, 1991)

“1850년대 이전에는 수녀가 아닌 간호직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인상과 평판이란 더럽고 부정행이라는 것이었다. 따

라서 1850년대까지만 해도 간호직은 여성들이 선택하는 직업이 결코 아니었다. 나이팅게일은 부유한 가문 출신의 매우 당찬 여성이었다. 1856년 크림리아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녀는 일약 명사가 되어 있었다. 그것은 적절한 간호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입증했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Hwang, 1998).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근대 간호,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는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에 의해 비롯되었다. 그녀는 친부적인 간호사이기도 했지만 정치, 행정, 위생개혁, 인권 등 그 능력과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던 위대한 여성이었다. Lee(1995)는 19세기 간호 전문화의 배경으로, 산업혁명기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로 병자들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 그리고 공장체제로 대표되는 새로운 노동조직이 보편화되면서 노동의 결과로 보수를 받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었다는 점, 또한 산업화가 노동과 가정을 분리시킴으로써 전통사회에서와는 달리 가정에서 병자를 돌보기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병자를 돌볼 사람과 장소가 필요하게 된 점, 산업화로 많은 이득을 본 새로운 계층인 부르주아가 부상하게 되었고 이들이 자선과 구제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점, 정부가 종래의 자유방임적 태도를 버리고 의료를 비롯한 사회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들을 들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 하에서, 당시 “더럽고 탐욕스러운 하류층의 여인네들이 하던 일”로 묘사되던 간호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나이팅게일의 탁월한 능력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합법성을 얻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그녀의 간호가 시대와 여론, 편견 등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영국 사회와 정객들이 양심적이었던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부유한 귀족가문 출신이었다는 점과 크림리아 전쟁이라는 데뷔 무대가 있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1860년 성 토마스 병원 내에 세워진 나이팅게일 간호학교는 이전의 간호와는 차별된, 즉 깨끗함과 규범, 도덕성, 책임감등을 상징하는 하얀 제복과 깡을 쓴 단정한 간호사로서의 이미지 변신을 꾀했으며, 오늘날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이러한 상징성은 간호에 여전히 남아 있다. Pox(1989)는 간호제복이 나타내는 은유와, 나이팅게일 선서에서 볼 수 있는 직업적, 개인적 삶의 순결성 유지와 헌신의 강조 등이 의학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지향, 권위와 책임에 대한 인식, 자율성의 강조 등과는 현격한 대조를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간호직과 의학전문직간의 성차와 전문적 지위차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때문에 20세기를 지나면서 미국의 간호는 나이

팅게일의 문화적 전통에서 탈피한 전문화를 모색해왔으나 더디고도 지난한 진화과정에는 늘 모호함과 갈등이 수반되었다.

시대적 상황과 조건에 힘입은 나이팅게일의 개인적 역량과 신앙이 페리다임의 전환에 비견될 만한 새로운 간호로 시대와의 단절을 이루며, 근대 간호를 열 수 있었던 반면, 그녀 이후 간호는 나이팅게일의 기나긴 그늘에서 너무 오래 지체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러한 배경에는 종교와 분리시킬 수 없는 간호의 역사성, 나이팅게일의 군 간호경험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간호교육의 전통과 관련된 지나친 보수주의적 경향과 경직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아쉬움이 크다. 앞서 살펴 본 지식/권력의 관계를 볼 때, 몸의 정치학은 주도면밀한 전략과 유연한 대응을 통해 전개되는 처절한 전장(戰場)이라 고려되기 때문이다.

2. 건강 담론의 분석

한편 우리는 역사 텍스트가 아닌 건강 담론들의 전략도 규명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한 시대의 지배적인 건강담론 역시 간호와 의학사를 구성하는 주요한 사료가 되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생활방식이나 행동이 건강 및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76년 캐나다의 Laronde 보고서로서, 이 보고서는 건강, 질병, 사망을 결정하는 요인을 유전, 물리적 환경, 생활방식 그리고 의료라고 지적하고 이 중 생활방식이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함으로써 건강의 결정 요인으로써 올바른 생활방식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건강증진의 실천에서는 개개인의 생활태도의 변화를 통한 생활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교육학이 기여하는 부분이 대단히 넓다.”(Kim, 1993)

건강증진은 21세기의 화두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건강전문직이 비중을 두고 있는 과제이다. 생활양식의 개선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건강한 생활양식이라는 것이 새롭게 최근에 알려진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라면 20세기 말, 갑작스럽게 부상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생활 양식이 장수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고안해 낼 수는 없다고 한

다. 하물며 그러한 방법을 완성해 낸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거대한 인간집단을 대상으로 영향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철저히 통제하면서 40~50년 정도 할 수 있는 연구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의 생활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나 심장, 장(腸), 콜라겐 합성, 혹은 암세포에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다면 그러한 생활습관의 조절은 역으로 개개인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와 강도로 신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Comroe, 1995).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모범으로 선택된 어떤 한 가지의 '생활양식'이 다른 여타의 생활 양식보다 건강과 장수에 결정적이며 나아가 우리 모두는 그러한 생활 양식에 순응해야 할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다는 신념 내지는 담론의 유포일 것이다. 우리는 TV나 인터넷, 서적들 혹은 공식·비공식으로 행해지는 교육들을 통해 어떤 운동을 하고, 무슨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얼마나 자주 들으며 살고 있는가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가령, 길거리 어디에서나 뛰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런데 조깅을 하면 오래 산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고 한다. 심지어 마라톤 선수도 장수와 아무 관련이 없었으며, 오히려 사후 부검을 해보면 대개 관상동맥이 막혀 있었다고 한다(Noakes et al., 1979). 이렇듯 개인의 건강이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달려 있다는 담론 역시 미세한 권력의 그물망으로 작용하여 우리 삶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충분한 인적·물적 투자만 있다면 암을 정복하고, 노화의 비밀을 알아내어 불로장생의 길을 여는 등의 의학적 성과는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했던 것에 비하면 현대의학이 아직껏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난제는 너무도 많다. 물론 수십 년에 걸쳐 또 방대한 연구비를 쏟아 부음으로써 의학은 암이나 여러 심혈관계 질환 등이 공기나 음식물중의 특정 화학성분(chemical agents)을 제거함으로써 막을 수 있다는 발표를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암이나 심장 질환의 예방이 가능하다면 애써서 복잡한 치료법을 개발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껏 암이 사망의 주된 원인이며, 장기적인 조절이 필요한 만성 질환자들의 증가로 인한 과중한 의료비 부담 등의 문제로 인해 의학이 건강에 대한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IV. 결론 및 제언

푸코의 역사분석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흐름은 바로 권력이다. 절대주의 시대에 왕이 권한을 행사하고 사람들의 복종을 끌어내고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지식 덕분에

있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지식의 발전이 근대화과정에서의 권력관계의 확산에 공헌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권력을, 총칼에서 나오는 것이거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강제력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의 기술과 실천의 수준에서 행사되는 전략적 관계로 보아야 한다. 즉 권력은 본질적으로 일상화된 평범한 행위 속에 편만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자신들의 영역만이 냉철한 과학이요, 가치 중립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도를 알아차려야 하며, 상대방의 지식과 경험은 비과학적이고 열등한 지식에 불과하다는 지배적인 담론의 전략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Park, 2002).

푸코의 역사분석은 간호와 의학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 읽기를 자극한다. 즉 세상에 순수한 역사기술이란 하나도 없다. 역사는 단순히 여러 힘의 관계를 분석하고 판독하는 틀이 아니라 그것을 수정하고, 역사적 삶의 질서를 통제하면서 자기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이다. 자기의 역사 기술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받는 것은 결정적으로 전략적 고지를 차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Park, 2002). 18세기말 이후 의학이나 치의학이 갑작스럽게 전문적 권력으로 부상하게 된 것도 시대적 조건에 부응하여 새로운 지식을 구축하고, 또 지식은 권력을 창출한 효과 때문이었다. 이 권력은 사회적 삶의 더 많은 영역들로,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스며들어 사람들은 부지불식간에 의학적 권력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간호와 의학사에 있어 기존의 역사서들은 변증법적 통합이라는 역사인식을 지향하여 합목적적인 진보와 모더니티의 도래를 기술하고 있지만, 푸코의 눈을 빌어 보면 간호와 의학의 역사 역시 선형적 진화를 해온 것이 아니라 시대적 단절을 이루는 다양한 조건과 상황속에서의 전략적인 몸의 정치학의 산물인 것이다.

역사 및 건강담론에 대한 지식/권력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의학의 발전과 노력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냉철하게 간호와 의학의 진화과정을 분석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혹은 '권력이동'으로 표현되는 21세기에, 간호전문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간호교육 및 실무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간호도 주체적으로 건강담론을 만들어가고, 유연한 자세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참고 문헌

- Ackerknecht, E. H. (1979). *History of medicine*, translated by Heo, J. (1987). Seoul: Jisiksan up-sa.
- Bamforth, I. (2001). Literature, medicine, and the culture Wars. *The Lancet*, 358, pp. 1361-1364.
- Committee of editing on health and disease in Open university in England (1991). *Health care in History*. Translated by Hwang, S. I., Seoul: Hanul Academy.
- Comroe, J. H. (1995). *Retrospectroscope: Insights into medical Discovery*. translated by Park, C. W. 1995, Seoul: Mirae Sa.
- Dreyfus, H. L., Rabinow, P. (1983). *Michel Foucault, beyond structuralism and hermeneutics*. The Harvester Press.
- Foucault, M. (1970). *Inaugural Lecture at College de france December, The order of discourse*. In Young, R. (ed.) (1981). *Untying the Text: A Poststructuralist Reader*,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pp.48-77.
- Foucault, M. (1973). *Madness and Civilisation*, London, Tavistock.
- Foucault, M. (1975). *The abnormalities*, translated by Park, J. J, 2001, Seoul: Dongmunseon
- Foucault, M. (1976). *The Birth of the Clinic: An Archaeology of Medical Perception*, London, Tavistock.
- Foucault, M. (1982). The subject and power. *Critical Inquiry*, 8, 777-95.
- Foucault, M. (1984). *The history of Sexuality: An introduction*, Vol. 1, Harmondsworth, Penguin.
- Habermas, J. (1994). *The philosophical discourse of modernity*. translated by Lee, J. W. (1994) Munye publishing Co.
- Hwang, S. I. (1998). *Interesting history of medicine*. Seoul: Hanulim publishing Co.
- Hwang, S. I. (1999). *Will the Clock of history stop in future ages?*. Seoul: Literature and criticism publishing.
- Kim, H. S. et al. (2000). *Outline of Nursing*, Seoul: Hyunmun Publishing co.
- Kim, I. S. (1993). Health promotion,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2, 12-20.
- Kim, J. M. (1992). *Patriarchal discourse and Power in ritual and daily lif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N. S. (1997). An attempt of reinterpretations on history of nursing and health care using Post-Structural method. *J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7(3), 531-540.
- Lee, J. C. (1995). *History of medicine and health care*. Seoul: Myongyong Publishing Co.
- Lee, Y. B (1991). *History of nursing*. Seoul: Soomunsa.
- Moon, C. J. (1992). *Sociology for health care*, Seoul: Shin-Gwang Publishing Co.
- Nettleton, S. (1988). *Th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Oxford: Polity press.
- Nettleton, S. (1992). *Power, pain & dentistry*,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Noakes, T. D., Opie, L. H., Rose, A. G., & Kleynbans, P. H. (1979). Autopsy-proved coronary atherosclerosis in marathon runners. *N Engl J Med*, 301, pp.86-91.
- Park, J. J. (2000). *The concept of power in Foucault*. lecture notes, Hangeorye cultural center.
- Park, J. J. (2002). <http://deer.sangmyung.ac.kr/~cjpark/>
- Park, G. M. (1995). *The Pocket of philosophical tales*. Seoul: Nokdu publishing Co.

-Abstract-

Key words : history, power, knowledge, discourse

History of nursing and medicine as phenomena of knowledge/power

Kim, Nam Sun* · Hong, Yoon Mi* · Lee, Kyu Eun*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history of nursing and medicine as phenomena of knowledge/power from the viewpoint of Foucault.

Method : The present study adopts the genealogical

*Dept. of Nursing, Kwandong Univ.

method by Foucault, which tries to unite languages and knowledge. Foucault who attempted to show that the basic ideas which people normally take to be permanent truths about human nature and society change in the course of history.

Results : It has been emphasized that the development of modern health care has been due to the progressive efforts of medicine and to medical discoveries. Foucault examin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knowledge and the power exerted thereby,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devices of social regulation and their function over the madness, the disease, the crime, and the sexuality. The concept of power is that it is exerted spontaneously in verbal behaviors of individuals through knowledge of everyday life such as definition of body or mind. Therefore as to the problem of knowledge/power,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istory of nursing and medicine through an analysis of the formation of text of history. In order to have authority in a power relation, the medical professional asserts that medical discourse is the most scientific knowledge.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above finding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body is also directly invested in a political field: power relations have an immediate hold upon it; they invest it, mark it, train it, torture it, force it to carry out tasks, to perform ceremonies, to emit signs. Therefore the devaluation of nursing care is reinforced by the medicine which has the legitimate authority through use of the political skills about the body.